



정교회주보

제2595호

2026년 9월 20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고대 항구도시 드로아의 유적. 사도 바울로가 밤새 강론하며 추락사한 청년 유두고를 살려낸 곳이다.



십자가 현양 축일 다음 주일
성 에프스타티오스 대순교자
(제7조 • 조과 복음 5)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7조 부활 찬양송 82
 - 십자가 현양 축일 찬양송 191
 - 성당 찬양송
 - 십자가 현양 축일 시기송 191
 - 사도경 : 갈라디아 2,16~20 (봉)196
 - 복음경 : 마르코 8,34~9,1 197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19-20)

[37회] 밤을 잊은 강론과 생명의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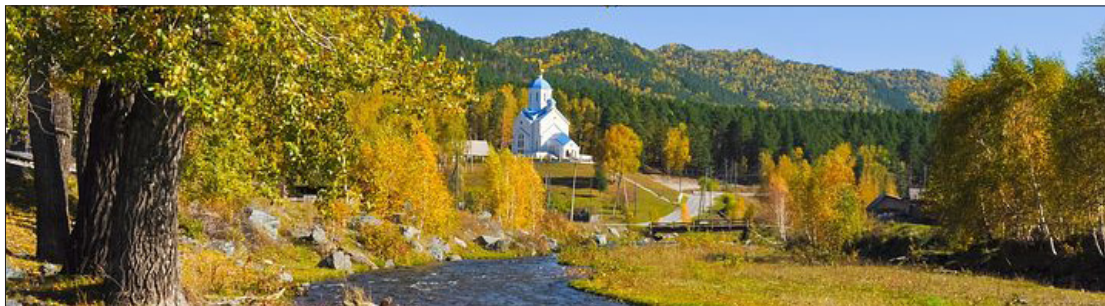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드로아에 들른 바울로는 안식일 다음 날, 신자들과 함께 빵을 떼며 밤이 늦도록 말씀을 전하였다. 이때 창가에 앉아 있던 청년 유두고가 졸음에 빠져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일어났다.(사도행전 20,9) 바울로는 즉시 내려가 그를 끌어안으며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시오. 아직 살아 있소"(사도행전 20,10)라고 말했고, 청년은 다시 살아났다.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죽음 위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덮여 부활이 이루어지는 신비로 해석했다.

이 밤,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며 큰 위로를 받았다.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밤을 낮처럼 밝힌 이 장면은,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는 절망이 머물 수 없음을 드러낸다. 유두고의 부활은 육체의 소생뿐 아니라, 영혼의 회복과 일치를 이루는 부활의 표징이었다.

주님과 함께

한의종 알렉산드로스 신부



“**전**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마르코 8,38)

이 말씀은 세상에서는 바른 사람인 척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위선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며 오히려 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말만 하고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등,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천사들을 거느리고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모른다고 외면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루가 8,19-21)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의 형제이며 부모인 것입니다. 그들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의식하여 세속적인 것을 더 사랑한다면 주님의 영

원한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마르코 8,35)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잠깐이지만 주님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헛된 삶을 산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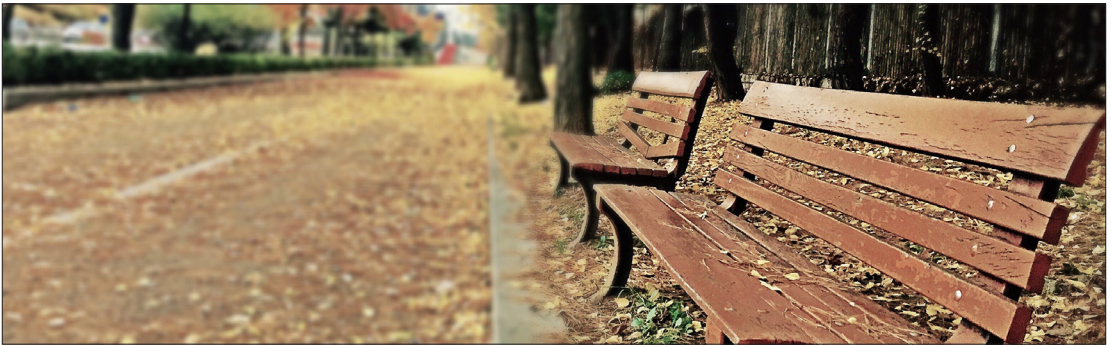
주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만유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멀리하고 경시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 주시어 그분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초대하시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부끄럼 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님께 떳떳한 자녀로서 인정받도록 합시다.

돈을 사랑한 아르기리 이야기

요안니스 코스토프 수도사제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아르기리는 부자였으며, 그리스 북쪽의 도시 요아니나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돈에 몹시 인색한 구두쇠였습니다. 자라면서는 돈에 대한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런 위안도 누리지 못했으며, 도리어 극빈자처럼 궁핍하고 옹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요아니나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집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아내와 하나뿐인 아이와 함께 오래되고 낡아 다 쓰러져 가는 구옥(舊屋)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사람답게 살기보다는 집을 세놓아 돈을 모으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몸을 누일 침대조차 하나 없었습니다. 대신 크고 튼튼한 금고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 돈을 넣어 잠가 두고 밤이면 그 위에 기대거나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는 돈을 아끼려고 밤에도 불을 켜지 않았으며, 오직 금고 안에 있는 돈을 세어 볼 때에만 불을 켰습니다. 돈을 다 세고 나면 다시 불을 끄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언제나 먹을 것이 부족했고, 시장에 가서도 가장 싼 식재료만 사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그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

었으면서도, 도와달라고 청하는 이에게는 작은 자선조차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느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기사길!’이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좋은 일을 좀 하라고 말할 때면, 그는 ‘우리 딸이 좀 메말랐다고 물을 퍼부어야 하나요?’하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이 한 말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해롭고 저주스러운 삶으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의 탄탈로스처럼, 많은 부(富)가 그의 손에 주어졌지만 그것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탄탈로스가 물을 마시려고 몸을 굽힐 때마다 물이 물러나 영원히 목마른 상태로 남아 있어야 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병이 들었지만, 그때조차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돈을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부르거나 약을 쓰지도 않았으며, 결국 자신의 금고 위에서 금고 열쇠를 손에 꼭 쥐 채 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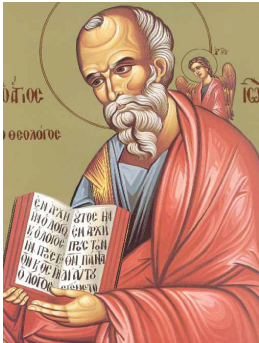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그의 장례식에 와서 마지막 작별의 입맞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마치 이름 없는 거지를 장례 지내듯, 그를 위해 눈물 흘리는 이 하나 없이 외롭고 쓸쓸하게 그의 시신을 땅에 묻었습니다.

주간 예배 안내

* 9월 26일(토)

성 요한 복음사도 신학자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 추석 추도식 안내

오는 9월 25일(금)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추도식이 거행됩니다.(서울 성당에서는 9:30부터 성찬예배가 시작하고, 이어서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신자들께서는 폴리바를 준비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각 지역 성당에 문의해 주십시오.

■ 서울 성당,

심폐소생술과 응급 처치 교육

지난 주일(13일) 오후, 서울 성당 선교회관에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여 명의 신자들이 참여해 심폐소생술과 응급 처치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 식

■ 한국 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축일 안내

10월 3일(토), 24인 수호성인 축일을 맞아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조과는 9시 30분에, 성찬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합니다.

참례를 원하시는 분은 소속 성당을 통해 미리 알려주시면 식사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2026 세계 에큐메니칼 평화대회

글리온 회의(1986년 스위스 글리온에서 남북한 교회 관계자들이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논의한 역사적인 회의) 40주년을 기념하는 ‘2026 세계 에큐메니칼 평화대회’가 지난 9일(수)부터 13일(주일)까지 열렸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세계 교회의 연대와 협력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9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국제회의 등 다양한 일정이 진행되었으며, 대회 마지막 날인 13일 오후에는 경동교회에서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NCCK 회원 교단인 우리 정교회 대교구도 이번 대회에 함께하며, 세계 교회와 더불어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연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성의 샘터

현혹되지 말라

어느 지혜로운 사부가 젊은 수도자에게 조언했다.

“그대가 머무는 곳에서 시작한 영적인 일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다면, 그대는 다른 곳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